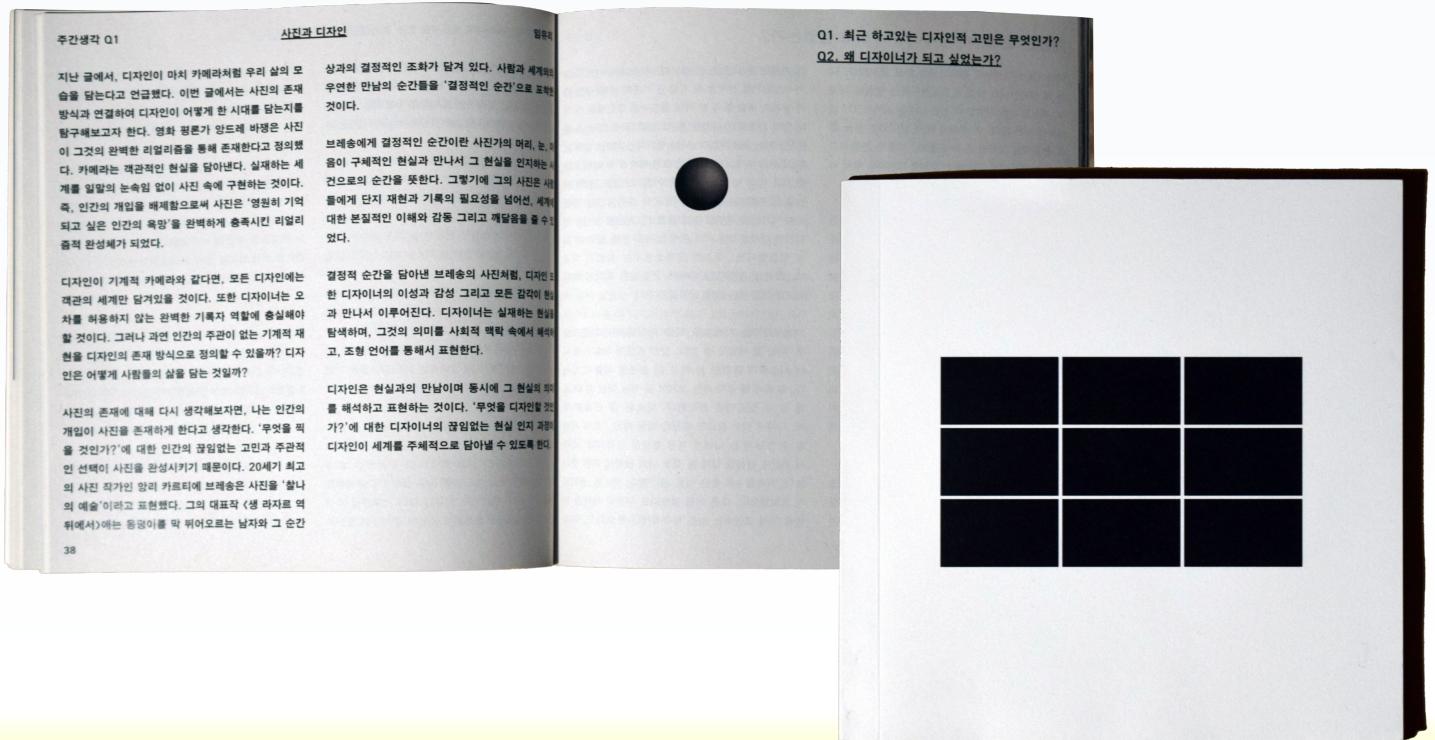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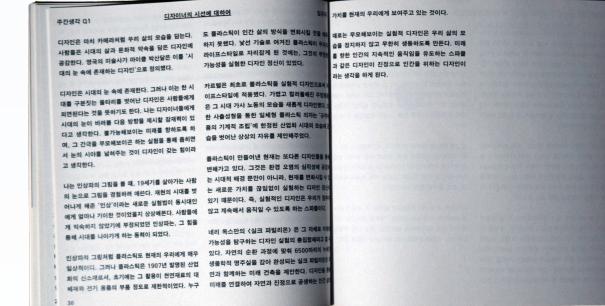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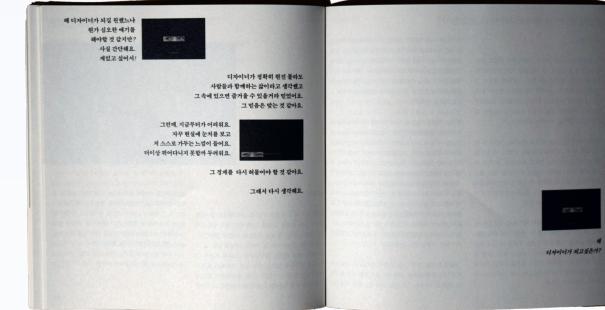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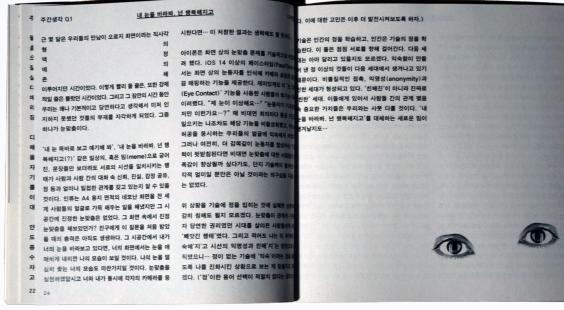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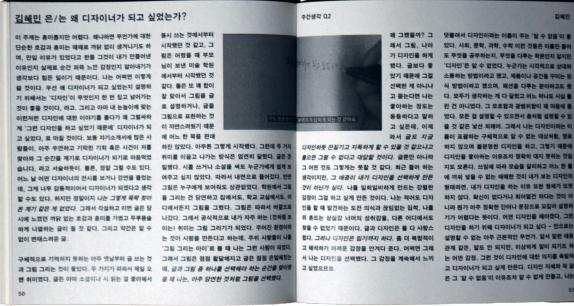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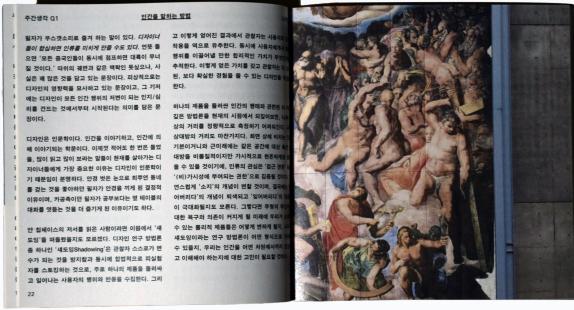
Weekly Thoughts

Editorial Design

148*148(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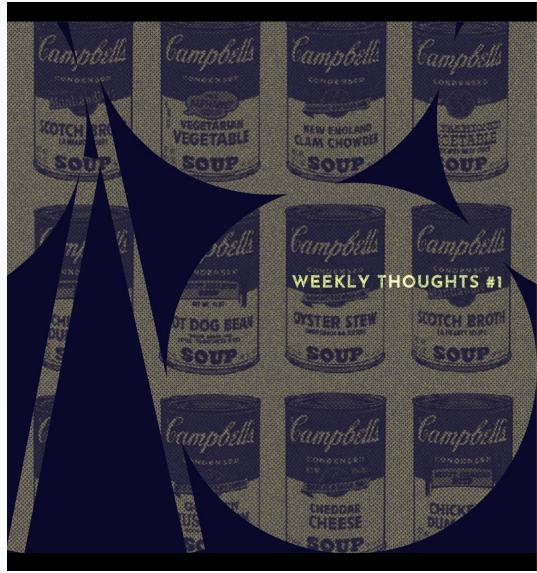
Weekly Thoughts is an anthology that contains short essays written by member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ign Society. During summer vacation, we wrote about multiple thoughts related to design, such as the reason for deciding to become a designer, the inspiration for design captured in daily life, and our conception of design. Then I gathered and edited all of those essays. Thanks to this project, I could organize my complicated thoughts: what I like, what I want to be, and what kind of design I want to do in the future.





The essays I uploaded on Instagram

Editorial Design



shwrks_ 나는 왜 포스터를 좋아하는가?

Keyword : poster, reproducton

- 밀터 벤아민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

나는 포스터가 좋다. 포스터가 지니는 물성과 제작 과정에서 형성되는 포스터의 '기자기'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포스터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그려진 요소를 어떻게 기술하고 배치하여 포스터를 만들면서 고민한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포함지 생각한다. 포스터는 본디 복잡한 정보를 다수에게 특정한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는 '출판물'이다. 예전에는 지급이나 포스터가 인쇄되지 않은 채로 애리어스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만드는 데에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터는 보통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출판되고, 여러 장소에서 볼시에(!) 출판해 사람들을 시각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한다.

이미한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포스터는 처음 제작될 때부터 '제작 가능성을 지니며' 그리고 볼 수 있다. 아니, 예전에는 '제작되는 것' 자체가 포스터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한다고 보면 당황할 것이다. 그리고 그 특성으로 포스터의 시선성과 청취성을 형성한다. 벤아민은 제작, 저작, 영원히 성격을 지녔던 고기 예술품과 달리 복제가 가능해진 현대에 이르러 미디어들은 제작이 아닌 '정지'에 내용을 두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술복제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예술은 바로 영화라고 말한다.

"한상된 영화는 주로 많은 영상들과 양상의 계열 중에서 조립자가 조립하여 만들어져 나온다. 또한 처음부터 그 영상들은 일련의 활영된 것들에서

juicyaloe님 와 27명이 좋아합니다
7월 27, 2021

댓글 달기... 개시



shwrks_ shwrks_design system effect?

Keyword : design system, branding, para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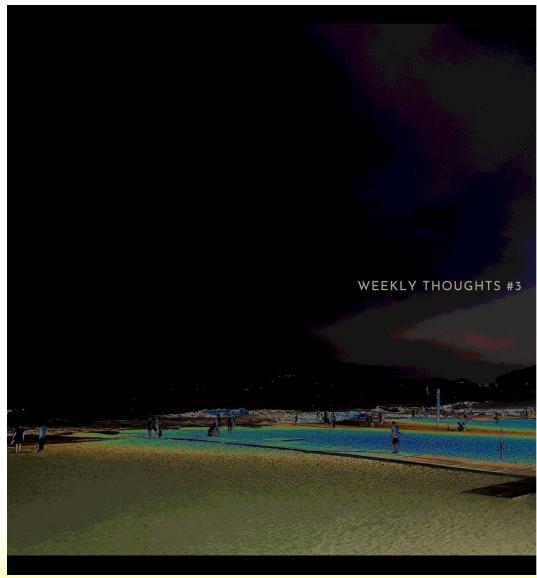
최근에 팀으로 작은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브랜드 프로젝트들이 으레 그렇듯 해당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비전을 베이스로 로고와 그雷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국면에 응용하는 작업이었다. 디자인 시스템을 세우고자 위해 계속해서 브랜드의 체계성을 '언어'로 정의하고, 다른 사람과 언어로 정의된 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합의하고, 디자인 요소들을 만들 어내는 것이 주된 작업 흐름이었다.

특정한 메시지나 주제를 조형 언어로 해석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식의 작업(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등)과는 다르게 브랜딩은 마치, 구축된 시스템이 속되며, 그 시스템 활용을 통한 다양한 국면에 시각적 사각지를 드는 유동 시스템인 것 같다(설명이 잘 맞지 않아...) 속도로 디자인 시스템이 일자리로 조직화되는 것처럼...) 거기서 파악되는 다른 작업들이 힘을 쓰기가 힘들다. 예술 작품을 하나의 시스템을 제작하고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특히 디자이너에게 '잘 짜여진 시스템은 작은 시장에서 효율을 가져다 주고, 예술가가 달리지도 일관된 안정도를 유지시켜준다.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을 입장에서는 브랜드 제품의 시각적 일관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찾는다.'

효율이고 안성도 높은 디자인 작업과 신뢰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이 중요한 것은 알았다. 그러나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의문은 다른 부분에 있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제작된' 언어로 정의하려하고, 그렇게 정의된 가치가 디자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언어성'이 있으며, 소비자 혹은 유저(이하 사용자는 디자인을 통해 그 가치를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면. 막상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른 곳에 적용해보

juicyaloe님 와 18명이 좋아합니다
8월 4, 2021

댓글 달기... 개시



shwrks_ shwrks_ 왜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가?

Keyword : communication, generalist, ludens

나는 이렇다.

1) 합의된 시스템

조형적인 시스템 안에서 규칙에 따라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든다는 것도 좋а한다. 하나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선 그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찾으기 필요하다. 합의하는 과정에선 설득이 필요하다. 설득하는 과정에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련의 설득들이 모여 합의된 시스템이 완성된다.

2) 출판사 유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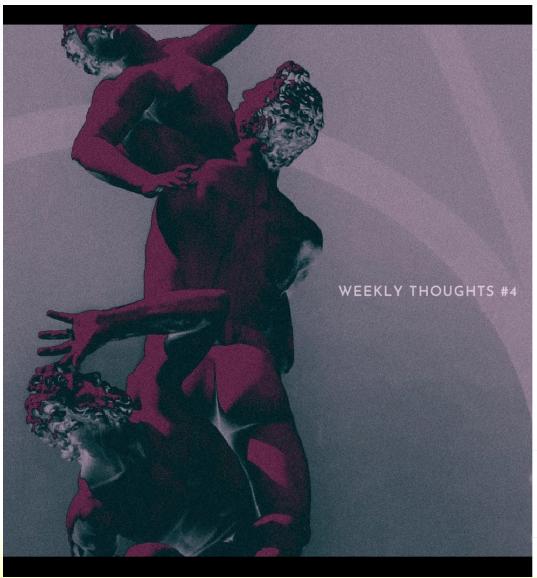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이 늘 많았다. 그러나 워낙 바빠 파기나 친득하게 해버린 빛났다. 하나님을 몰입하기도 고개 절구려서 익히기 싫어졌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찾았다. 그렇게 접하게 된 일고 님은 잡지사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끔 넘지는 우두머리나 능동기리로 사용되고 했다. 한 분야의 전문가나 오타쿠들은 내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3) 출거품은 필수적

되도록 늘 상상부터 시작해서, 아이없는 일상난, 농담따먹기, 혁신유형, 개인, 각종 미생물, 새로운 지식 등 나를 재밌게 하는 것은 내 삶에 필수적이다. '혼모 투렌스(homo ludens)'라고, 모든 인간은 출거물을 구수하고 유학적 존재라고 했던 하위정의의 말을 떠올려보면 확실히 나는

juicyaloe님 와 23명이 좋아합니다
8월 14, 2021

댓글 달기... 개시



shwrks_ shwrks_ 디지털 복제시대, 아우라의 부활?

Keyword : reproduction, NFT, aura

•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두번째

아주 먼 옛날, 복제가 이루어진 시기의 예술품은 시간 속에서 축적된 진풍성, 일회성, 지속성을 지녔다. 이러한 유일한 등을 벤아민은 '아우라'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시절 예술품은 '아우라'를 지니며 제작의 유통으로 사용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제 기술이 발달하고 예술품이 제작의 유통에서 해방되면서 예술작품은 전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예술 생산에서 진풍성을 판권화하는 척도로 효력을 차지되면서 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도 변화한다. 사람들은 예술품의 주제적 기능을 부자적으로, '예술적인' 기능을 주기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예술품을 자신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유일한 예술품을 보러 찾아가는게 아닌, '복제'를 통해 감상하고 느낀다.

'아우라를 파괴하는 일은 오늘날의 가치이 갖는 특징이다.' - 밀터 벤아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중

시각디자인을 하면서 만나는 매체는 대부분 복제매체이다. 아날로그 매체에서는 책이나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매체도 (너무 당연하게도)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들이다. 각각의 결과물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다. 어느 하나가 유일한 뿐 아니라 유일하지 않고, 모두 같은 정보와 메시지를 복제특성으로 사람들을에게 아주 가까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복제매체의 강력한 힘이다.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어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ctrl+c, ctrl+v 한번이면 데이터를 뜻밖 복제할 수 있다. 데이터로 존재하는

juicyaloe님 와 27명이 좋아합니다
8월 25, 2021

댓글 달기... 개시